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특 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이것이 사장의 '권위'인가 부적절한 의전.. 권위주의의 만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출입기자가 두 부서에 있다.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정책 등은 산업부의 국토해양부 담당이지만 사회부 사건팀에서도 '고참' 기자가 공항과 항공사를 함께 말한다.

사회부 출입기자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민원의 해결과 의전이다.

사장이 업무차 공항을 이용할 때 담당 기자는 공항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미리 연락하고 공항에 직접 나가 의전한다. VIP룸 이용이나 세관, 보안검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일이다.

언론사 사장은 공식적으로 공항의 의전 대상이기때문에 그 자체로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2면에 계속



특별취재팀은 인터넷 여론 '찍기도'

박정찬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15일자로 편집국에 특별취재팀을 신설했다.

에디터-팀장-팀원 4명 체제로 출범한 특취팀에 주어진 임무는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유언비어 등에 대한 진위를 가려주라'는 것이었다.

팀원들에게 '제2의 촛불사태'를 막으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공공연히 들려왔다.

2009년 5월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따른 촛불시위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때였고, 보수 신문들은 촛불시위를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인해 벌어진 사회 혼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었다.

당시 팀원들은 "보수신문에서 '정부 정책과 다른 유언비어와 괴담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면 어김없이 오전 편집회의에서 지적받았고 기사 작성 지시가 내려왔다"고 기억했다.

기자들은 논조가 있는 신문의 의도성 있는 기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하기도 하고, 지시를 매번 거절하기도 부담스러워 수위를 조절해 기사를 내보냈다고 한다.

특취팀은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작성창을 통해 '인터넷 동향 보고'를 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가장 많이 본 뉴스, 최다 댓글 뉴스 그리고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이슈가 되는 글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인터넷 영역의 아이টে이 송고 직전에 '킬'된 경우도 있었다.

'2009년 10대 최다 댓글 뉴스' 기사는 데스크를 마치고 송고 직전이었지만 워선의 지시로 송고되지 못했다.

4대 포털을 종합한 결과 최다 댓글 뉴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기사였고, 2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기사, 3위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 기사였다.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기사엔 애도와 조의를 표하는 내용의 호의적 댓글이 주를 이뤘고, 이명박 대통령 관련 기사엔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확히 어느 워선에서부터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의 내용에 불편함을 느낀 '어느 워선'에서 송고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데스크는 '워선의 지시'라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작성기자에게 했다고 한다.

특취팀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국내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소리가 있을 때면, 이를 괴담 내지 유언비어로 규정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기사 작성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에도 특취팀은 관련 유언비어에 대한 <천안함 침몰 관련 황당주장 난무>, <증거에도 막무가내..천안함 5대 유언비어>, <천안함 과학적 결론에 음모론 일단 잠복>, <천안함 둘러싼 4대 의문점..진실과 거짓>, <진위 드러나는 천안함 억측.유언비어> 등의 기사를 송고했다.

팀원들은 당시 침몰 원인과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상에서 제기된 합리적 의심마저도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치부하려는 워선의 시선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취재 지시에 따라 <누리꾼 현혹하는 4대강 유언비어 '눈살'> 등의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특취팀(이후 '기획취재팀')은 통신기사의 영역을 넘어선 심층 기획 기사를 다수 발굴해 호평 받았지만, 사실 주요 임무는 인터넷 감시였다고 증언한다.

6.25 ‘멸공’ 뜨고 4.19 ‘민주’ 지고

역사적 무게 걸맞은 특집 기획 균형 잃어

2010년은 여러 모로 십진법 단위의 역사적 기념일이 많은 해였다.

1950년 6·25 한국전쟁, 1960년 4·19 혁명이 대표적이다.

그 영향력 면에서 무게가 다른 역사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연합뉴스는 이 계기에 걸맞은 특집의 기획에서 균형감을 상실했다.

한국전쟁 특집은 ‘전쟁사’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실 발굴에 충실했지만 전반적으로 멸공 통일, 반공 냉전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양한 접근법으로 입체적인 조명을 해도 부족하건만 평면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접근으로 일관하면서 그 취재 노고가 퇴색했다.

당시 출고된 기사들을 살펴보자. <나의 6.25>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들의 인터뷰를 기술하는 시도였다.

“9월15일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국군은 파죽지세로 북으로 치고 올라갔지. 원산, 함흥, 성진, 청진까지 한 달음이었어”

“전쟁이 터진 뒤 수도 서울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인민군이 계속 밀고 내려오면서 진해까지 총소리가 들렸다. 어린 마음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

“요즘 국가안보관이 너무 해이해졌다. 6.25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자

라나는 후세들이 올바른 국가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여생을 보내도록 매진할 것”

“그런데 이게 뭔가, 6.25를 복침이라는 등 미제의 침탈이라 등...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피가 거꾸로 쏟구쳐”

“나는 운이 좋아 살았지만,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먼저 간 학우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한국전쟁의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애국자지만 특히 학업과 인생을 포기하고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난 모든 무명의 학도병들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

그해 3월22일 처음 등장한 <나의 6.25>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는 6월 14일까지 이어진다.

<6.25秘史>, <6.25 60년..아! 그곳>과 같은 통일된 제목의 기사도 쏟아졌다.

이들 콘텐츠 역시 “백마고지 능선..시체가 빨래 널 것 같았다”, ‘대구 사수’ 낙동강 방어선 구축..북진 발판 마련 등의 부제에서 볼 수 있듯 과거 TV드라마 ‘전우’ 필(feel)을 물씬 풍겼다.

이에 비해 전쟁 발발의 기원, 전쟁 자체의 성격 규정 등에 대한 학술적

성과, 그리고 이것이 갖는 현재적 의미에 대한 조명은 부실했다.

한국전쟁의 갖는 역사적 무게를 오롯이 담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독자들의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와 달리 4·19는 편집국 차원에서 아예 특집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아이러니 그 자체다.

이승만 독재에 맞선 미완의 혁명은 연합뉴스에서 만큼은 기사로서 그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셈이다.

4.19 당일 “4.19정신 계승하자” 전국서 기념행사, “김주열 열사, 그는 역사의 눈이다”,李大통령 “씩은곳 도려내고 제도개선 박차”(4.19 기념사), <

정치권, 4.19 정신 계승 다짐> 등이 송고된 수준이었다.

그해 4월 연합뉴스 노조는 노사 편집위원회에서 기획물의 검토와 생산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에 걸맞은 균형감을 잃지 말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

당시 사측은 4.19 혁명 특집을 검토하지 않은 데 대해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저 일상에 묻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해명이었다.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조직과 문화에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1면에 이어

그러나 박정찬 사장이 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과도한 의전이 이뤄졌다는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

본인은 기억나지 않고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박 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예전에 없던 부적절한 의전이 박 사장 재임시절 유난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5월 박 사장은 알자지라 방문을 위해 도하로 출장을 다녀왔다. 두바이에 들러 주재 특파원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박 사장은 두바이까지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다. 두바이 도착시간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4시 30분이었다. 그럼에도 ‘윗선’에서는 현지에서 대한항공 지점장의 의전을 요구했다.

담당기자는 ‘비변인 사람을 새벽시간에 불러내는 것은 어렵다’며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윗선에서도 알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장이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 두바이 특파원은 물론 해당 출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한항

공 지점장이 나와 의전을 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자가 요청했을 땐 거절했는데 이후 위에서 다시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지만 ‘이건 좀 심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로써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8월 뉴욕에서 열린 연합뉴스제보도사진전 출장때 박 사장은 부인과 동행했다.

기자는 짐을 하나씩 챙겨 들고 탑승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출국장 입구를 지나 탑승 게이트 앞까지 갔다.

게이트 앞에서 짐을 건네려던 순간, 함께 있던 고위 간부는 비행기 안까지 따라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기자는 당황한 승무원들을 밀고 들어가 사장의 짐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나왔다.

당시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지방 언론사 대표는 “연합뉴스 대단하네요”라며 웃었다고 한다.

공항 출입기자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의전 때문에 귀국한 일도 있었다.

휴가일정은 일찌감치 정해져 있던 일이었고 이후 사장의 출장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기자는 해외에서 휴가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공항과 항공사 측에 사전조율을 해두었다. 공항에 나가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윗선’의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해도 되겠냐’며 기자가 직접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했다.

기자는 결국 일행보다 먼저 귀국해 손수 의전을 해야 했다.

전례가 없던 국내 출장 의전도 박 사장때 생겼다. 국내선 이용은 보안검색이나 세관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자가 공항에 나가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박 사장 때에는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기자가 나가 ‘짐을 챙기는’ 의전을 하게 됐다.